

#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김 성 식

## I 종교개혁의 의의

종교개혁(그 보다도 성서주의·복음주의·프로테스탄티즘)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나 할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루터를 가리킨다. 그러나 동시에 루터 이전에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안다. 그들은 Pre-Reformation 운동을 지도한 사람들로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가 다 지나도록 계속하여 나타났던 사람이다. 그중에 남불 지방의 Cathari 운동자들과 Waldueign, 그리고 영국의 Wycliffe 와 뵈헤미아의 Huss 등은 모두 두드러진 개혁자들이었고 그들의 운동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루터에서와 같은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혁가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객관적 시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루터이전의 개혁가 들은 종교개혁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시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창시자로서의 명예를 루터에게 양보하고 만 것이다.

다음 우리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나? 당시 전통적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단지의 항거운동으로서 해석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종파운동으로 생각 하여야 되나? 물론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

테스탄티즘이란 이름이 생겼고 새로운 종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Reformation이란 말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지도 알수 없었으나 좀더 고차적으로 혹은 교회사 전경에서 본다면 루터나 그 당시의 개혁운동을 그리스도교 내지 이스라엘 종교사상의 한 원류의 격동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파동은 물의 균형운동이요 그것은 역학적으로 해석될 문제라고 본다. 즉 종교개혁 운동을 역학적 견지에서 다루어야 될 줄로 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나 이스라엘 종교사상에는 이원적 원류가 엄연히 존재해 있다. 그것은 보는 종교(미사·제사)와 듣는 종교(설교·예언)다.<sup>1)</sup> 전자는 시각에 호소하여 신앙을 유지하고 후자는 청각을 통해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는 종교는 어디든지 일원적이고 친편일률적이거나 듣는 종교는 다원적이고 다채롭다. 보는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나 듣는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전자는 죽은듯 교묘한 종교요 후자는 살아 있는 악동하는 종교다. 보는 종교는 제사장과 신부에게 집중되는 구심력을 가졌고 듣는 종교는 설교와 예언에 따라 다원적으로 이해되는 원심력이 있는 종교다.

다시 말하면 보는 종교인 제사종교나 가톨릭교는 제도적이며 전통적이며 획일적인 구심력 종교요 듣는 종교는 실질적이며 자유적이고 복수적인 원심적 종교다. 이 두 갈래의 원류는 이스라엘 종교사상에서부터 그리스도교사상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앞날의 발전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교의 지나친 제도적 구심운동에 대한 역균형(Counter Balance)운동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지나친 시각적 종교에 대해서 청각적 설교종교로 그리스도교의 두 원류의 균형을 잡으려는데 종교개혁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교(이스라엘종교)에 있어서 구심적인 것과 원심적인 두 경향은 항상 서로 견제하며 전체 그리스도교의 균형을 유지 하려는 운동이다. 현대 프로테스탄티즘 내에서 일어나는 기라성같은 많은 신학자들의 노작도 구심적 경향으로 치우쳐 가는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역균형 운동으로(원심력으로써) 볼 수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부단한 상호 작용은 그리스도교의 유니크한 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죽지 않고 화석이 되지 않고 항상 살아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고대 모든 다른 종교를 볼 때 그것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거기는 구심력에 대한 원심력의 반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대 종교의 구

1) <카토리씨즘과 프로테스탄티즘>(思想界 1960年 2月號 掘橋)

심력은 당시의 모든 구심적 세력인 전체 군주와 국가 세력에 합작하였기 때문에 원심력이 생겨 날수가 없었고 급기야 군주나 국가의 패망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였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이미 유대교나 가톨릭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가적 종교로서의 구심력을 가진 동시에 사회적 종교로서의 원심력도 있어서 이 두세력이 서로 반발하고 균형에로의 운동을 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살아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신학의 명제로 말한다면 구심력은 Realism 이요 원심력은 Nominalism 이다. Ockham 이나 Wycliffe, 그리고 Huss 나 루터는 모두 Nominalists 였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지나친 Realism 에 대한 균형을 얻으려는 Nominalism 의 운동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그리스도교는 이 운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저울이 한편으로 기울어 지다가 그 균형을 얻음으로써 다시 수평을 유지하여 저울의 구실을 함과 같이, 이러한 논리가 시인된다면 과거의 모든 이단(가톨릭에서 보는)운동도 결국 구심력에 대한 원심력의 균형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국제·국내 정치사정

루터 시대(1483~1546)는 신생에 대한 각성의 시대였고 Acton 경의 말과 같이 <관습에 지배 받고 묘지에서 잠 자는 주인들의 의미에 속박되었던 긴(長) 시대는 끝장을 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조망을 희망의 찬 눈으로 바라보는><sup>2)</sup> 16 세기가 되었던 것이다. 루터의 개혁운동도 크게 보면 이러한 격동기의 한 표면이었고 그 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참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나타 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실 루터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당시의 역사적 현실도 꼭 유리하게 전개 되었다. 우선 국제적 정치에 있어서도 세력균형의 시대였으니 만치 영·불 또는 로마교회 까지도 신성로마 제국의 비대를 경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불은 사사 건건이 황제의 세력을 깎아 내리우기에 부심하였다. 그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루터를 눌렀어야 할 황제는 속수 무책이었다. 더구나 노멕시 밀리안제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판에(1519년사) 불왕 프랑소아-1 세 영왕 헨리 8 세는 잔뜩 제위를 노리고 있었음으로 루터 진압에 국력을 소모할 수도 없었다. 특히 제위를 얻는데 실패한 불왕의 침입을 막아 이와 전쟁을 하게 됨에 있어서(1521) 더욱 그러 하였다. 불왕과 황제와의 싸움은 그대로 수세기 동안 계속 되었던 것이다.

2) Lord Acton, *Lectures on Modern History*, London, 1920, p. 4.

국내 형편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루터운동에 대해서 유리하게 되어 갔다. 우선 맥시밀리안제는 자기 손자 카알5세(1521년 대관)를 제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독일의 7선제후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했고 특히 동북지방에 세력을 갖고 있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후의 영민이었고 후는 루터운동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을뿐 하등의 손을 대고 있지 않는 판국에 맥시밀리안제나 그의 후계자 카알5세가 함부로 루터를 진압 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신제카알 5세는 다윈민족의 황제로서 제위와 제국의 판도를 유지하는데 급급 하였을뿐 루터에 대해서 과감한 처치를 내리는 경우 제국의 통일이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밖의 제후들 중에 루터의 신신학과 개혁운동에 찬동하는 사람이 늘어 나왔고 또 기사 직켄겐이나 훗텐이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루터를 보호해 줄것을 다짐하고 있는 터이었으므로 황제도 어쩔수 없었다. 로마교황은 처음엔 그저 보잘것 없는 일개 수도사가 자기 이름이나 올리기 위해서 한 짓으로 여기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sup>3)</sup> 그러는 동안에 루터의 운동은 역센 조수와 같이 되어 막을 길이 없었다.

### III 사회·경제적 배경

루터 시대는 새 종교를 받아 들일 수 있으리만치 사회·경제면에서 성숙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서 액튼경의 말과 같이 16세기는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시대였다. 이때에 전통적 교회가 신 시대에 적응하려면 의연한 구태를 벗어 버려야 했다. 루터의 개혁운동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원래 유럽이 새 시대는 15세기 후반기부터 시작 되었는데 밖으로는 신대륙과 신향로가 발견되고 이에 따라 해외 무역로가 열리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제국의 상업발달과 더불어 상로가 트이고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동시에 모든 물자가 집산하여 유럽의 정신은 두 갈래로 그 갈길을 취하였다. 밖으로는 유럽 이외의 세계로 향했고 안으로는 교회·신앙·내세 보다도 현세·속물주의에로 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현세·속물주의의 대표적 지방으로서 스페인과 풀추갈은 Antwerp에 동양수과무역저장고를 설치하고 유럽 대륙과 통상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국제주의·세계시민주의의 나라로서 불행한 국가로부터 피란해 오는 망명자의 수용소이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3)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 N. Y. 1950, p. 85.

엔트워프는 교역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일로 번영하여 갔다 한다. 도시동맹도 엔트워프에 물자를 저장하였고 영국의 모험 상인들도 그 곳을 통해서 모직물을 북구에 팔았으며 이태리 은행들도 그곳에서 업무를 활발히 하였다. 동 시장도 베니스에서 엔트워프로 옮겨졌었고 국제 금융의 중심지도 엔트워프였다. 말하자면 엔트워프는 <상업적 유럽 정신> (The Soul of Commercial Europe)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심장부는 증권거래소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확실히 동서의 풍부한 진귀한 물자와 화폐의 유통은 지금까지 금욕생활을 인생의 최고 이념으로 생각 하던 중세인에게 대해서는 우선 커다란 경이적인 것인 동시에 버릴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였다. 현실을 부정하고 오욕을 버리고 내세를 위하여 수도원과 교회당을 찾느니 보다 엔트워프 같은 도시에 진출하여 현실을 한번 긍정하여 보고 적극적인 현세적 생활을 영위해 보려는 충동을 느낄만 하도록 세상은 변했다. 여기서 부터 속물주의 (Philistinism)의 전단계의 세속주의 (Secularism)가 일어 났다.

이리하여 사회가 달라져 갔다. 귀족이나 지주·양반들이 말할 때는 지나갔고 강력한 금력을 가진 시민사회가 무럭 무럭 자라났다. 지체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금력으로써 시민·자본가는 정계·교계 할것없이 마구 흔들여 댔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각국 군주들은 자본가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돈을 차용 하여야 되었고 그것의 환부가 제대로 안될때는 자본가 (Fugger)로부터 <분명히 폐하께서는 신의 원조가 없었던들 신성 로마제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신이 불란서 왕의 요구에 응했다라면 신은 지금 보다 더 많은 돈과 토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폐하께서는 얼마나 곤란했었을 것이란 것을 폐하께서는 잘 아실 것 아니십니까? ...<sup>5)</sup> 공갈을 받고 빨리 돈을 갚아야 했다. 사실 신성 로마제국의 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카알 5세는 Fugger 재벌로부터 600,000Gulden (1563년 기준으로 \$ 824,000, 1913년을 기준하면 \$ 8,240,000)을 차입하였던 것이요 그 돈으로 선제후를 매수했고 그 중에 마인츠와 쾰른의 대주교들이 포섭대상이 되었었다. 카알제는 그 대신에 채광권 기타의 권리를 Fugger 재벌에 주는 것이었다.

자본가 (Fugger)는 정계에뿐 아니고 교계에도 침투하여 이를 조종하였다. 1513년에 Mainz, Magdeburg, Halberstadt 삼대교회에 주교가 공석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마인츠 대주교구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그 지위는 수석대왕교위인

4)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 Y. 1926. pp. 72~75.

5) 本位田祥男:マルチン・ルシタ, 1934. p. 41.

동시에 선제후의 지위였는데 부란덴부르크 선제후는 자기 동생 Albrecht 를 (연령미만에 불구하고) 대주교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교황청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Fugger 재벌로부터 막대한 돈(불 516,680,1913 년 기준)을 빌려야 되었으며 이것이 성사되면 마인츠 대주교는 인덜젠스를 팔아 Fugger 재벌에 돈을 갚도록 교황청은 면허 하였던 것이다. 그런것이 종교개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sup>6)</sup>

인제 교회는 속물주의 속으로 타락되고 말았다. 전통적 교회는 신사회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킬 수 없었다. 새로운 종파가 기대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다원적으로 분해작용(Social dissolution)을 하고 있는데 단일교회(가톨릭 교회)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교회·종파의 분열·탄생이 예기되는 것이었다. 루터교회는 그 자체가 영방교회(Landeskirche)로 되고 말았지만 루터는 앞으로 다원사회에 적응될 수 있는 다원적 종파의 탄생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루터 자신은 그것을 생각치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므로 크게 보면 종교개혁은 다원적 사회를 위한 다원적 교회운동이라고 하겠다.

#### IV. 정신적 문화적 배경

역사는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종교개혁도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만이 아니라 실인즉 그것들의 깊은 밑 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적 정신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일어 났던 것이다.

우선 15, 16세기에는 국민적 사상이 현저하여 젊고 각 군주나 영주들은 보편적 교회보다 지방적 국민적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교황과 군주들 사이에 세력다툼이 일어날적 마다 국민적 교회사상은 더욱 증가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영주(군주)들의 교회영지에 대한 야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때 로마교회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교회보다 국가, 교황보다 그들의 군주를 더 가까운 존재로 생각했다.

그보다도 14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스콜라 철학의 붕괴 중심이 Ockham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계시와 이성의 분리로 신학과 철학의 갈라짐에서 었다. 그리고 보편적(가톨릭)교회는 명목에 불과하다 실존해 있는 것은 각국의 교회라고 하는 개체주의적인 명목론이 대두하여 로마교회의 카톨릭적인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영국,

6) E. G.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s*, Saint Louis, 1950, p. 41, pp. 306~314

참조.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쥘네부, 북구 등지에서 저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 가톨릭교를 국가·국민적 종교로 개조 하였었다.

독일의 Eckhart(1260~1327)에서 시작된 소위 독일 신비주의 사상은 인간과 신과의 직접적인 영교의 길을 열어 놓았다. 모든 실체는 신적이고 인간의 영혼속에는 하나님의 불꽃(Spark)이 있으므로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교 할 수 있다. 그리스도안에 하나님의 거하신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교회의 의식을 따르는 것이 다소 가치있는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영교는 더 직접적이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그의 고제 Tauler에게 계승 되었고 그의 설교속에는 복음주의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루터도 높이 평가 하였다. 이 신비주의 운동은 남독과 스위스에 퍼졌다. 이 집단을 <Friends of God>라고 하였고 그들의 신학사상이 담겨 있는 <Theologia Germanica>는 루터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Thoams a Kempis의 <Imitatio Christi>는 아마 독일신비주의 사상이 대집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서였다. N. Cusanus의 신학도 신비주의 신학이었는데 그는 직관에 의해서 신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성이 말하는 모든 차별과 대립의 부정을 통해서 신에의 직관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교황·교회·양식같은 중개자 없이 신과 직통할 수 있는 개인적, 주관적, 신비주의는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조와 아울러 이태리 르네상스 이후 자유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이 발달 하였다는 것은 권위를 그 생명으로 하는 로마교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Valla(1407~1457)에 의한 <콘스탄틴의 기진>의 허위증명이었다. 역대 로마교황은 4세기초 콘스탄틴황제가 콘스탄틴노플로 천도할때 로마와 서방 통치권을 교황 Sylvester에게 주었다는 이 <콘스탄틴의 기진>문서를 근거로 하고 세속지배권을 주장하여 왔다. Valla는 중세 라틴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기진> 문서에 나타난 라틴어가 4세기 기초의 것이 아니고 8세기 중엽의 라틴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로마교황의 위서였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Valla는 이런 일로 나폴리로 도망 쳤다가 다시 교황청에서 일을 보았으나 그의 비판은 <지적인 지진> Intellectual Earthquake)이었고<sup>7)</sup> 또 그것은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커다란 손상을 주었다. 이제 르네상스는 교회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감히 도전하였던 것이다. 로마교회에 대해서 고등비판이

7) James W. Thompson, et., *A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N. Y. 1942, Vol. I, p. 493.

시작되었다. 루터도 Valla의 비판서를 보았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북구의 휴머니즘이 성서적 휴머니즘(Biblical Humanism)<sup>8)</sup>으로 발전 하였다는 것은 북구학자들로 하여금 성서를 원어에서 연구하게 하였다. 그보다도 북구 학자들은 성서원어를 연구하는(헬라·로마고전 보다) 풍조를 조성하여 성서적 휴머니즘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스트들은 교회개혁의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프랑스의 휴머니스트 Lefevre는 1909년에 <시편주석>을 출간 하였는데 거기서 루페브르는 로마교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공로와 성례전을 공격 하였다. 루터도 자기의 시편강의에서 루페브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1513)<sup>9)</sup> <믿음의 의>를 탐안에서 체험(1514년, 가을)하는데 밑 받침이 되었다. 다윗왕이 여호와의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고 탄원한 노래인 시편은 루터로 하여금 인간의 공로를 거부하고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체험케 한 것이다.

또 Erasmus는 헬라어 신약성서를 저술하였는데 루터는 그것을 교본으로 사용 하였고 뒤에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Reuchlin은 <히브리어초보>를 저술하였는데 그것은 루터의 구약성서 번역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루터는 그들 휴머니스트 들의 도움으로 1517~8년간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숙달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성서적 휴머니스트들은 성제롬의 라틴 역 성서의 오류를 발견하는 동시에 일구로 교회개혁을 주장 하였던 것이다.

## V. 루터의 위인

종교개혁의 모든 조건이 성숙하여졌고 또 역사적 현실이 개혁운동에 유리 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하필이면 루터에 이르러서 운동의 발단이 생겨 났을까?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주동인물인 루터라는 사람의 그 위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개혁은 당대의 양심적 인사였다면 누구나 다 말했던 것이오 또 어학에 있어서는 에라스므를 따를 사람이 없었고 헬라어에 있어서는 Melancthon에 앞서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며 히브리어에는 로이히링에 견줄만 한 학자도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루터보다 앞섰던 것인데 왜 종교개혁에는 루터에 뒤 떨어 졌을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가 루터라는 위인에 미치지 못하고

8) Schwiebert, *op. cit.*, pp. 278-282.

9) Robert H. Fife, *The Revolt of Martin Luther*, N. Y. 1957, pp. 192-4.



있었던 관계다.

같은 여건하에서 역사적 인물이 되지 못했으면 그것은 그 위인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의지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인격의 중심에서, 영적·정신적 영역의 최심부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신적 지도자는 역사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개성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그 생애를 더듬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나 루터의 정신적 발전은 영적인 심연에서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루터를 이해 하려면 루터 그 사람에서 먼저 하여야 되는 것이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의 정신적 출발점인 영적 심연(in seelischen Tiefen)에는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sup>10)</sup> 그러므로 루터는 외부의 사정이나 역사적 전통에 하등의 의식을 기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깊은 신앙적 체험에서 종교개혁을 창도하였던 것이다. 사실 에라스무스나 그 밖의 독일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외부의 사정에 눈을 기울였기 때문에 바른 말과 행동에 주저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었던 것이다. 루터는 그 내면적 위대한 인격에서 독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터가 정신이나 행동에 있어서 독일민족의 지도자중에 누구보다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악마적-Daemonischste 이 있으며 그 때문에 가장 인위적인 인간><sup>11)</sup>이었던 것도 루터는 어디까지나 내면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피히테도 <독일 국민에게 고하는 연설>에서 정의(Gemuet)와 감격성(Begeisterung)이 있는 루터에 의해서 형식화된 기독교가 재생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루터의 위인을 역설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은 순간적으로 <국민적 영웅><sup>12)</sup>도 될 수 있었다.

혹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루터를 정신 박약자로 취급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낙뢰사건을 단지 루터의 성격 타락에서 해석 한다든지 정신병리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3)</sup> 그러나 그뒤 루터가 종교개혁을 꾸준히 힘있게 끌고 나간것도 정신박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루터와 같은 남달리 감격성과 정의를 풍부히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억제할 수 없는 언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신박약병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생활의 출발점이 그의 내면적 영적심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오랜 영적시련을 통

10) Gerharrd Ritter, *Luther* (gestalt u. Tat) 5te aufl, Muenchen, 1949, p. 19ff.

11) Kurt Bresig, *Vom Deutschen Geist u. Seiner Wesenart*, Berlin 1932, pp. 1 56~7.

12) Johannes Hallrer, *Die Epochen der deutschen Geschichte*, Berlin, 1931, p. 19i.

13) Erik H. Erikson, *Young Man Luther*, N. Y. 1958, pp. 25~ 28.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그러한 심각하고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는 넉넉히 영적 시련을 겪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수도원에서 영적 투쟁을 겪었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력이 생겼고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으나 원래 그러한 성격이 없는 자는 수도생활을 의의있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자기 소신에 따라 수도원을 박차고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종교적 천재에는 두 타입이 있다.<sup>14)</sup> 하나는 원시예언자에 영감받은 천재장래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진리를 제창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를 이해한 천재, 당대의 대변자가 된 사람, 그가 본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의 희생을 각오하고 그의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 루터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다시금 생각해 본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시대가 성숙 하였는데 루터의 남다른 용기와 의지와 열정과 성실과 시시각각의 결단이 종교개혁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그러나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후, 관중목 슈팔라틴, 스승 슈타우피츠 그 밖의 빠텐베르크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

14) Rufus M. Jones, *Spiritual Reform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eacon Press, 1956, pp. 14-15.